

# 민주 “박대통령 사과...靑 수석들 총사퇴해야”

# 여 “윤, 떳떳하게 조사 받아야”

###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회 진상조사 등 총공세

### “불통인사 책임져야... 꼬리자르기식 마무리 안돼”

민주당은 12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 추행’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주장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변인의 ‘성 추행’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 맨 처음 한 1호 인사였다”며 “불통인사를 강행한 책임을 느끼고 인사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자기검증 차원에서라도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도 총사퇴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몇 명 문책 등 뺄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사퇴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청와대 진용이 꾸러질 때까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개편 시간을 기다릴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윤창중 성추행 사건 및 축수 은폐 의혹 진상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민정수석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번 사태에 대

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청와대 내 ‘불통’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데 대해 “어이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반대해도 억지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데, 국민과 대통령이 동급이나. 전제군주의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인식이 이렇게 대통령 잘못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이다. ‘에스맨’이 가득한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책임자들에게 정확히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정보와 관련, 민주당은 줄곧 갈등관계를 보여온 공동대변인 제 폐지, 홍보수석과 대변인 관계 설정 등을 주문했다. 한창에 원내부대표는 “청와대 수석이건 누구건, 대통령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보고하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철저한 진상 규명 강조...당 지도부 대책 마련 골몰

새누리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다.

민천주 대변인은 12일 “윤 전 대변인이 해외 순방 중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청와대 참모진 총사퇴와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도 윤 전 대변인을 전혀 옹호할 뜻이 없다”면서도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은 이날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 및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의 후속 사과와 관련한 논평을 아예 내지 않았다. 전날 논평에서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시종일관 개인에 대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기자회견 태도와 내용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책임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대신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삼간 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자칫 이번 사태가 여권 내부의 ‘집안싸움’이나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며 장기화될 경우, 여권 전체가 수세로 몰리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이 악영향을 받고 여당까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경질과는 별개로 청와대 내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고강도 처벌’이 당내에서 대두한 것도 선제적 사태수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견해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에 이남기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등 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변인의 미국 현지 조사와 함께 이 수석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전 당 지도부와 발표문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광주 이어 봉하마을도 찾을까

### 노무현재단 초청장 발송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5·18에 맞춰 광주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에 즈음해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도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이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면 영호남의 야권 지지층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릴 예정이며 노무현 재단은 여야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고 안 의원에게도 보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초청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대선 출마선언 직후인 지난해 9월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며 ‘친노 깨안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친노의 상징적 인물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 진영과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지난 3월에도 당시 단일화 뒷얘기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양측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추도식에 참배할 가능성이 높음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이 ‘범야권’ 정치인으로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들끓는 여성 국회의원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 여성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변인의 미국 현지 조사와 함께 이남기 홍보수석비서관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민주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 임명

정치혁신실행위원장 이종걸·홍보위원장 박광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정책위의장에 장병완 의원(재선·광주 남구)을 임명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재선·서울 동대문)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총괄해온 변재일 연구원장(3선·충북 청원)은 각각 유임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것은 민주당 새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전무한 점과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낸 ‘예산 및 정책통(通)’이란 점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우려 김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의원(4선·경기 안산 상록)을, 전국여성위원장에 유승희 의원(재선·서울 성북),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최동희 의원(초선·비례대표), 세계한민족회의 수석부회장에는 김성곤 의원(4선·여수 갑)을 각각 임명했다.

또 통상 2명인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민주당 조직국장이 새로 임명됐고,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던 이동섭 부총장은 유임됐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당의 혁신작업을 총괄할 정치혁신실행위원장에 이종걸 의원을 임명하고 한 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영입하는 등 후속

장병완 의원 박광은 위원장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는 민홍철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최원식 의원, 법률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홍보위원장은 박광은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대변인 등이 각각 임명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원내대표 경선 막판 혼전 양상 속 ‘윤창중 파문’ 변수되나 촉각

여야의 원내대표 경선전이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번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더욱 예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여권 내 ‘진실공방’ 양상 속에 장기화하고 야권이 ‘국격 추락 청문회’나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경우, 이를 다뤄나가야 하는 임무가 새 원내대표의 역할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12일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악화된 여론수습을 위해 좀 더 강도 높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운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조각 과정에서 당내에서는 ‘청와대에 할 말을, 때로는 쓴소리를 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비등했는데, 그 갈

은 분위기가 ‘윤창중 사태’를 맞아 다시 고조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전병헌·김동철·우원근(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힘든 구도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따라서 호남 출신인 김동철·우원근 의원의 지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한 단일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총사퇴 등에 대해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후보들은 자신이야말로 당의 이런 입장을 원내에서 대의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책임자라고 역설했으나 속도와 실현방법 등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요리하는남자

# 이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